

## 영어학을 보는 시각 차이\*

이 석 재  
(연세대학교)

이 글은 『안과박』 제10호에 실린 박남식 교수의 영어학에 관한 시평을 논박하는 글로서, 필자는 이 글에서 ‘영어 잘하기’가 ‘영어학’의 일차적 목표가 아님을 피력하고 나아가 박교수의 비실증적인 비판과 그의 글 저변에 보이지 않게 깔려있는 한 학문에 대한 곡해가 영어학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I

박교수의 시평은 크게는 영어를 향한 열기에 온통 휩쓸려 버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작게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혁을 모색하는 많은 대학들에서, 더욱 작게는 ‘영문학과’ ‘영어학’의 양분 구조에서, 특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배출해야 하는 현 국내 대학의 영어영문학과 내에서 ‘영어학’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강한 제안의 글이다. 하지만 글을 읽고는 왠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그 원인은 우선 ‘영어학’에 대한 편견이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에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방향 모색을 위한 현 영어학의 연구 및 교육 방법에 대한 비판이 실증적이지 못하여 인상주의적인 면으로 흐르고 있고, 제시된 대안 또한 그러하며, 마지막으로 지나친 이분법으로 학문을 추상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교수는 그의 글 이곳 저곳에서 영어학을 ‘실기’, ‘실용’, ‘실질’ 등과 같이 ‘실’자가 들어간 어휘와 관련을 맺어 기술하며 영어학의 목적이 “영어의 이해 및 생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해석으로 박교수의 주

---

[주요어] 영어학, 언어학, 실용, 응용성, 자료, 이론, 상대성, 영어

\* 이 글은 박남식 교수의 「외국어학으로서의 영어학: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안과박』 2001년 상반기/제10호 pp. 168-186)에 대한 평론이다.

장에서 최우선시 되는 것은 영어의 이해보다는 “영어의 생산 능력” 또는 “영어 구사력”이라고 표현된 ‘영어 잘하기’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대학에서 영어학의 일차적인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은 특히 그의 글 전반부(1. 주체와 객체의 관점, 2. 상아탑과 현실사회의 관점, 3. 교수 중심과 학생 중심의 관점, 4.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영어의 이해”라는 표현이 그의 글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의 글에서 ‘영어의 이해’를 영어학의 목표의 하나로 분명히 잡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영어의 이해’를 위하여 영어학계에서 노력해온 점들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철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격려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박교수의 현 영어학에 대한 비판은 영어학에 대한 그의 시각이 일반적 영어학계의 시각(즉, 영어의 언어학적 이해)과는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영어학을 축소 해석하고 그 축소 해석된 영어학을 주로 옹호하는데서 비롯된다.

영어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영어학을 영어의 소리, 영어의 어휘, 영어의 문장과 문맥,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그리고 그들의 심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영어의 다양한 쓰임새 등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영어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정의 내릴 때, 이러한 정의에 의의를 제기하는 영어학자는 많지 않으리라 추측된다. 물론 ‘영어 잘하기’가 영어의 언어학적 이해를 수월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영어 잘하기’를 위한 교육이 대학에서 영어학의 일차적 목표라는 데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바이다.

한편 영어학에서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는 영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각의 틀이고 논리의 틀이다. 그리고 그 이론들은 철저히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교수의 글은 자료와 이론을 엄격히 분리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서 영어학이 “현실 사회의 문제는 도외시하면서 순전히 이론을 위한 이론, 학문을 위한 학문에만 전념해왔다”거나 “지나칠 정도로 추상적인 이론만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평가를 내리는데, 이는 이론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강한 피상적인 심리적 반감에서 나온 듯 싶다. 도대체 영어학의 어떠한 실태가 이론을 위한 이론이고 학문을 위한 학문이란 말인가? 자료를 근거로 영어의 다양한 실제 모습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생각과 논리의 틀을 갖추는 것이 어찌하여 “추상적”이란 말인가? 백보 양보하여 그것이 추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자료의 설명을 위하여 추상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이 왜 영어학에서 평가절하되어야 하는가? 영어학의 이론들

은 자료의 자세한 관찰과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영어학이 “흔히 언어 자료의 연구를 희생”한다는 글귀는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박교수의 “추상적인 이론”이란 표현에서 ‘추상적인’이란 표현이 단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이론’은 ‘쓸데없는 논의’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영어학의 실용적인 측면을 굳이 따져본다면 영어 잘하기가 그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영어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익히는 자세한 관찰 방법과 자료의 분류 방법 그리고 그 자료를 이해하는 방법 및 거기에 따르는 자기 주장의 논리성을 익히는 것도 영어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실용적인 것이고 (어쩌면 이러한 면이 살아가는데 더 실용적일지 모른다), 영어의 옛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알게 해주는 것도 실용적인 것이고, 영어의 리듬 연구를 통한 영시의 감상과 이해를 복돋아 마음의 희열을 배가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실용적인 것이고, 영어라는 언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및 합성등에 활용될 수 있는 언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실용적인 것이다. 다름 아닌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분석 방법을 터득케 하고, 그 응용성도 배양하여 영어를 통한 삶의 기쁨을 주는 모두가 영어학에서 실용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교수의 편협된 실용주의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순수 학문에 대한 열정 없이는 ‘응용성’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사회 가까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은가?

## II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문제는 주관적 추측에 입각한 박교수의 현실 비판이다. 방향 모색을 위한 글에서 현실 비판을 가할 때에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서는 비판 대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글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현재의 영어학이 연구자료의 연구 및 분석을 등한시하고, 현실 문제 해결을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있으며, 영어 자체의 연구를 이차적으로 돌리는지, 또 어떠한 근거로 영어학이 지나칠 정도로 추상적이며 단지 교수 중심의 영어학인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현재 영어학이 언어이론의 그림자에만 매달려 왔는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에 논지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 곡해를

블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III

이분법적 대조의 논리에서도 논리의 공백이 보인다. 가장 대표적 예가 위에서 언급한 ‘이론’과 ‘자료’의 분리이고, 또한 글 처음에 나오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이다. 박교수는 글에서 주체와 객체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 바 있다. 즉, 경기에 직접 참가하는 운동선수는 경기에 대하여 주체의 관점을 갖게 되고, 관중은 객체의 관점을 갖는데 이러한 두 관점의 차이가 영어학을 대하는 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국어로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학에 대하여 주체의 관점을 갖는데 반하여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영어학을 하는 이들은 객체의 관점을 가지며 우선 “영어 자체의 이해와 그 구사력 함양에 노력을 집중하고, 영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구사력이 얻어진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이차적으로 영어의 본질이나 이론적 조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표현하였다. 과연 영어학을 하는데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필요한가? 다시 말해 영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항상 객체의 관점에 머무를 필요가 있느냐하는 질문이다. 필자도 운동경기에 비유를 들어 표현하자면 운동경기의 관중이 항상 관중일 이유는 없다. 뜻이 맞는 관중끼리 모여서 그 운동 경기를 즐길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진짜 선수 못지 않는 훌륭한 선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객체와 주체의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영어학을 객체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이유는 없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박교수가 든 비유도 이상하거나 그 비유를 따르다 하여도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영어학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영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상태에서 영어학을 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이겠다. 그러나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고 영어의 모습을 이해하거나 또한 그 이해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지적 기쁨의 소유마저 미리 포기할 정도로 영어가 외국어인 현실이 영어학 연구를 항시적 객체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는 없다.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분법적 논리는 “교수 중심의 영어학”과 “학생 중심의 영어학”으로의 구분이다. 박교수의 생각은 현재와 같은 이론 중심의 영어학 교과는 교수 중심이고(이를 “상아탑주의적인 영어학”과 함께 “독재적인 영어학”이라고 표현하였

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과가 “학생 중심의 영어학”이라는 생각인데, 이는 앞서 말했지만 ‘영어학’과 ‘실용’에 대한 축소된 해석에서 오는 것이며, 오히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만이 학생이 욕구라고 판단하여 박교수의 제안처럼 소위 이론 위주의 과목보다 당장 박교수가 생각하는 실용적인 과목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영어학을 ‘수정’한다면 이는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간과하는 태도가 될 우려도 있다. 또한 박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영어영문학과에서 영어학뿐만이 아닌 영문학도 ‘독재적인 영문학’이라고 불리어야 할 판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영문학 과목들도 단지 학생의 영어 잘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교수가 과연 영어영문학과에서 영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에게도 당신들이 영어영문학에서 학생들의 영어 잘하기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으니 ‘독재적 영문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영문학이든 영어학이든, 기능주의적 실용주의의 시각으로만 영어영문학과와의 정체성을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절대로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의 영어 잘하기를 위한 노력을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영어 잘하기는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영어 글쓰기, 영어 말하고 듣기, 영어 읽기 등과 같은 과목을 더욱 내실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영어학 과목들을 ‘수정’하여 영어 잘하기 과목으로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의 선회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이는 다시 말해 영어 잘하기가 영어영문학과 학생뿐만이 아닌 타 전공 대다수의 대학생이 (그리고 슬픈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기본으로 갖추어야 되는 기능적 요인으로 강요받는 현실에서 영어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에게 ‘나의 전공은 영어 잘하기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유도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영어학이 영어 잘하기를 위한 방법에 심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일이지만 영어학의 일차적 목표가 단지 영어 잘하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의 글에 나타난 다른 이분법적 구분은 영어학과 언어학의 구분이다. 박교수는 심지어 현재 “정작 영어학 연구는 경시되어버리고, 그 대신 일반 언어학의 연구가 증추적”이 되어 버렸다고 한탄하는데, 앞서서도 감히 정의를 내려보았지만 필자의 견해로 영어학은 영어라는 언어를 대상으로한 언어학이다. 즉, 언어학적 연구 방법과

이론을 통하여 영어의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가 주 자료가 된 것은 물론이지만, 타 언어의 연구를 통한 언어학 이론의 틀을 공고히 할 수 있고 다시 그들이 영어의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면, 타 언어의 연구는 박교수의 표현대로 그렇게 “웃지 못할 일”이나 “어처구니없는 일”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영어학과 언어학은 분리의 대상이 아니다.

박교수의 이분법적 논의에 의한 학문 가르기는 “협의의 영어학”과 “광의의 영어학”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박교수는 영어 음운론, 영어 통사론, 영어 의미론, 영어 형태론 등은 “사용되는 상황의 맥락은 완전히 무시한 채 .... 오직 하나의 진공 속에 존재하는 이상화된 언어”를 연구하는 협의의 영어학으로 파악하는데, 도대체 어느 음운론자, 통사론자, 의미론자, 형태론자가 이상화된 영어를 연구하는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상황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다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위의 영어학들이 박교수의 표현대로 “진정한 의미의 영어학”이 아니라고 비판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 예로 영어 음운론에서 영어 소리 체계의 내재된 규칙성을 찾을 때 상황맥락이 고려되지 않더라도 그 소리 체계가 영어를 특징짓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경우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상황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영어 소리의 모습도 영어의 모습이고, 이런 의미에서 영어음운론도 진정한 의미로 영어학의 한 분야이다. 더욱이 박교수가 협의의 영어학으로 가름한 음운론에서도 상황맥락을 고려한 많은 연구들(예로서 상황맥락에 따른 영어 리듬에 관한 연구)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니 ‘협의’와 ‘광의’에 의한 분류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한편 영어의 어휘 체계는 어떠한가? 상황맥락이 고려되지 않더라도 영어 어휘 체계의 구조 및 규칙성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영어 형태론이 상황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협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상화된 언어”를 연구한다고 비판 할 수는 없다. 영어 통사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황맥락과는 별도로 영어 문장 자체의 규칙성과 구조는 한 문장이 다른 언어의 문장이 아닌 영어 문장임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도 영어의 모습이고 따라서 상황맥락이 배제된 통사론도 당연히 진정한 영어학의 한 분야이다. 한편 박교수가 ‘협의’와 대조시킨 그리고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고 편들은 “광의의 영어학”에서 ‘광의’라는 표현은 상황맥락의 고려 유무 이상의 ‘광의’를 뜻하고 있다. ‘광의’와 언어 사용의 사회, 문화, 심리적인 면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볼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광의’가 ‘응용’ 언어학의 ‘응용’에 해당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이해

된다. 그런데 그의 글에서 증대한 문제는 “협어의 언어학”과 “광의의 언어학”이 상호 보완의 관계가 아닌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의의 언어학 또는 응용언어학, 영어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협의의 언어학 또는 순수언어학, 이 또한 영어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협의의 언어학에서 취하는 전제 및 방법론은 “잘못된 것”이고 (비판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지 아무튼 알지 못할 이유로 박교수의 글에서 “잘못된”이란 표현이 괄호 속에 있다), 광의의 영어학이 취하는 입장은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는 견해는 박교수가 생각하는 영어학의 방향 모색에서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영어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대립적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그의 글 후반부에서 영어학계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 언급한 해결의 정반합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IV

한편 박교수의 지적 중 현 영어학계의 맹목적 외국지존주의에 대한 비판은 많은 영어학자가 곁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처럼 같은 한국 학자의 의견은 대부분 ‘무시’하는 풍토에서는 한국 학자들 간의 의견 교환과 토의를 통한 학문의 발전을 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학자가 외국과 국내사이의 지식 중개인일 수는 없지 않는가?

## V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언을 달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영어영문학과 정체성의 ‘상대성’에 관한 소고인데, 국내 모든 대학의 영어영문학과(혹은 ‘영어’와 관련된 학과)가 같은 교과과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언어적 분석이 진실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박교수의 제안처럼 ‘영어 잘하기’에 전념하는 방향으로 교과를 편성할 수도 있고, ‘영어 하기’가 일정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는 ‘영어 더 잘하기’와 더불어 필자의 견해에 따른 영어학(및 영문학)을 접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과를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 박교수의 글을 비판한 바탕에는 박교수가 이런 영어영문학과와 ‘상대적’ 여건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국내에서 영어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박교수가 국내 유수의 대학 학생들에게 영어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필자가 이렇게까지 놀라며 이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Abstract]

### **Different views on English Linguistics**

Seok-Chae Rhee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criticizes Professor Nam-Sik Park's understanding and proposals on the educational implementation of English Linguistics in Korea. First of all, this article claims that 'studying English' cannot be the primary goal of 'doing English linguistics', arguing that the curriculum related to the English linguistics should not be altered on the basis of the practical use of English linguistics. The article furthermore criticizes Professor Park's narrow view on the 'practicalism'. Criticism is also addressed to Professor Park's undesirable and unduly clear-cut dichotomy on 'data' versus 'theory', 'subject' versus 'object', 'theoretical linguistics' versus 'applied linguistics', and 'English linguistics' versus 'linguistics', while the author's fundamental emphasis is given to the idea that humanistic understanding of English language is necessary for proper and extensive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English linguistics in Korea.